

“눈높은 韓관객 반응 궁금…칸 수상보다 떨려”

수사드라마·로맨스 각각 100% 표현 감정을 숨기고 돌려 표현하는 사람들 박해일·탕웨이 간 오묘한 감정 그려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요소 많아

“칸 수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관객의 평가이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간) 폐막한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고 금의환향한 박찬욱 감독이 긴장하고 있다. 2004년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9년 심사위원상(박쥐)에 이어 세 번째 칸 트로피를 거머쥔 그도 관객의 예리한 평가를 피할 수 없나 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헤어질 결심'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영화에는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그 어떤 영화제 수상보다 한국 개봉 이후 결과와 관객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고 매우 긴장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목과 기준”을 가진 한국 관객 덕분에 ‘케이(K) 콘텐츠’가 세계적 위상을 얻은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수사극과 멜로의 균형”

29일 개봉하는 영화는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박해일과 사망자의 아내 탕웨이 사이에 피어나는 오묘한 감정을 그린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수사극과 로맨스 장르를 결합했다.



박찬욱 감독이 2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열린 영화 '헤어질 결심'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박 감독은 그 균형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50%의 수사드라마와 50%의 로맨스 영화로 표현하는데, 나는 100%의 수사드

라마와 100%의 로맨스 영화라 표현하고 싶다. 사건 심문 과정, 자료 조사, 탐문 수사, 잠복근무 등 형사의 모든 업무가 영화에서는 연애 과정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높은 폭력 표현 수위와 노출이나 정사 장면을 담은 박 감독의 전작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중 두 주인공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돌려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리킨 박 감독은 “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들여다보게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다른 요소는 제거해야 했다. 섬세하고 여린 목소리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만주를 너무 시끄럽거나 화려하게 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해일·탕웨이의 완벽한 호흡”

두 주인공의 조화가 중요한 로맨스 영화에서 박해일과 탕웨이는 만족스러운 호흡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실제 두 배우의 자부심도 그랬다.

박해일은 “탕웨이가 곧 극중 캐릭터 ‘송서래’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표정과 눈빛이, 탕웨이가 배우로서 지닌 최고의 매력이라 생각해 왔다. 그런 자신의 매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확장했다”고 힘줘 말했다.

탕웨이는 박해일의 눈빛 연기를 칭찬했다. “사실 촬영하면서 정확히 어떤 영화인지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완성된 영화 속 박해일의 눈빛을 보고 ‘완벽한 멜로 수사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는 “박해일의 눈빛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 중 가장 좋다”며 미소 지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여름 시네마 ‘女뽕라’

여성 교도소 그린 ‘이공삼철’ 8일 개봉 김지영·김미화 등 7인7색 멀티캐스팅 ‘리미트’ ‘밀수’ 등 女주연작 출격 준비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영화가 연이어 관객을 만날 태세다. 특히 한국영화에서는 그동안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 ‘멀티캐스팅’(다수가 주인공인 작품) 영화도 잇달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남성 캐릭터를 위주로 꾸며진 서사 속에서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쳐 보였던 아쉬움을 채워줄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8일 개봉하는 ‘이공삼철’은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7명의

여성 캐릭터가 이야기를 펼친다. 신에 흠예지를 필두로 김지영, 김미화, 황석정, 신은정, 전소민, 윤미경이 호흡을 맞췄다. 여름시즌 관객을 만나는 범죄 스릴러 ‘리미트’도 이정현, 문정희, 진서연을 복수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이정현이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 역할을 맡고, 문정희와 진서연이 각각 유괴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과 유괴 당한 아이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엄마를 각각 연기한다.

다양한 장르의 여성 토크 캐릭터를 내세워 하반기 선보일 영화도 눈에 띈다. 김혜수와 염정아가 주연해 하반기 개봉하는 ‘밀수’와 김다미·전소나가 손잡은 ‘소울메이트’다.

‘밀수’는 ‘베테랑’과 ‘부당거래’ 등 남성



캐릭터 위주의 범죄액션물을 선보여 온 류승완 감독의 신작으로, 조인성·박정민 등 남성배우들이 조연으로 나선다. 두 여성의 찬란하면서도 애뜻한 우정을 섬세하게 그리는 ‘소울메이트’는 중국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의 한국판이다.

2018년 ‘마녀’의 후속편으로 15일 공개하는 ‘마녀 파트2, 더 디어 원’을 시작으로 라미란 주연 ‘정직한 후보2’와 ‘시민 덕희’, 신세연이 주연하는 스릴러 ‘타겟’ 등 여성 단독 캐릭터가 이끄는 이야기도 하반기 연이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3

안재현, 첫 번째 포토에세이 ‘기억…’ 출간



안재현

배우 안재현이 작가로 변신했다. 2일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안재현은 이날 첫 번째 포토에세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출간한다. 책은 삶의 의미가 점차 무뎌지고 지친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를 담았다. 8가지 목록의 기억을 따라가면서 소소한 일상과 더 너그럽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의지를 그려간다. 소탈한 삶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사진도 실린다. 안재현이 출연한 tvN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시리즈의 연출자 나영석 PD는 “인생에서 잠시 비켜서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라며 추천사를 썼다.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걸그룹 블랙핑크.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COP26 홍보대사 맡게 돼 감사”

걸그룹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9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지구의 현 상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해 배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COP26 홍보대사를 맡아 가까이서 듣고 알릴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비, 청와대서 17일 단독 공연 무료 공개



비

가수 비(정지훈)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 비는 2일 SNS를 통해 “여러분 덕분에 1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영광스럽게도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드레스 코드는 블랙이다. 검정색 의상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와 달라”면서 “비트 위에 몸을 맡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무료로 공개되며, 당일 넷플릭스 콘텐츠 촬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비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잇츠 레이닝’, ‘레이니즘’ 등을 히트시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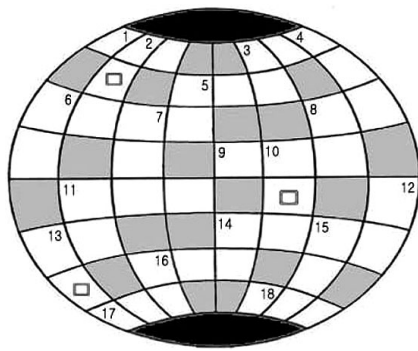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8		4		7	3	
7			5		8			
5				6				4
	8		6		4		2	
1		4				5		6
	5		7		3		4	
4				3				2
			2		6			3
	2	5		9		8		

■ 스도쿠정답

4	9	8	1	6	7	5	2	3
8	5	7	9	2	1	4	6	3
2	6	1	5	3	8	9	7	4
9	7	6	8	1	2	5	9	4
5	9	2	7	4	8	6	3	1
1	2	3	7	5	9	8	4	6
7	8	2	4	9	6	1	5	3
6	1	9	8	2	5	7	3	4
3	4	1	6	7	1	8	9	2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 03. 배가 와서 달는 곳. 나무. 05. 희생이 된 물건 또는 사람. 06. 다른 산의 나뭇 돌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 08.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09. 바쁜 가운데의 한가

한 때. 11. 아이를 뺨 여자. 13. 받을 돈을 거두어들이. 14.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16. 비유적으로, 발이 넓음. 또는 그런 사람. 17.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18. 산의 계곡을 흐르는 물.

■ 세로 열쇠

02. 겨울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오골’ 03.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품. 04. 장에 내다 팔기 위해 만든 물건. 05. 용액에 물·용매를 가해 묽게 함. 06. 자기 고향이 아닌 고향. 07.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 버리는 사람이 믿는 가상의 신. ‘로름’ 08.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세. 10. 한가운대를 지나가는 선. 11. 군주 국가의 원수. 왕. 12. 예전에, 젊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스럽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게 일컫던 말. 13.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 14. 산업이나 경제 등을 발전시켜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함. 15. 오랜 동안. 16. 정해진 기한의 끝.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